

# 북쪽 바다에 살아 숨쉰다

아바시리강의 하구에 위치한 모요로  
폐총은 지금으로부터 약1300년  
전에 아바시리에 살았던  
‘모요로인’의 마을 유적입니다.

북쪽에서 도래한 민족이었던  
모요로인은 ‘오호츠크 문화’라  
불리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구축했습니다.

‘오호츠크 문화’를 처음으로  
규명한 ‘모요로 폐총’이 발견된지  
100년

북쪽 바다에 살았던 모요로인의  
삶이 오늘날에 되살아납니다.

## 교통 안내

- JR아바시리역에서 도보로 25분
- 메만베쓰 공항에서 메만베쓰 공항선 버스에  
승차 ‘모요로 이리구치’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5분



## 이용안내

- 개관시간/오전 9시~오후 5시  
※ 동절기(11월~4월)는 오후 4시까지
- 휴관일/7월~9월은 무휴입니다.  
10월~6월 월요일, 국경일, 연말연시
- 입관료/어른 300엔  
고등·대학생 200엔  
초등·중학생 100엔  
※ 각 단체고객(20명 이상) 20% 할인
- 전시물을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체험전시 제외).
- 관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흡연은 금지입니다.



아바시리 시립 향토박물관 분관  
**모요로 폐총관**

우편번호 093-0051  
아바시리시 기타1조 히가시 2초메  
TEL. 0152-43-2608

2013년 5월 1일 개관

고대 오호츠크의 마을에 모요로인의 삶이 되살아난다

사적 모요로 폐총

オホツクの  
モヨロ  
貝塚館

모요로 폐총관

(주) 아바시리시

## 2F 패총 전시실

모요로인의 삶을 ‘생활’, ‘무덤’,  
‘패총’의 테마별로 살펴봅니다.



복원 주거지



## 1F 패총 전시실 묘역 전시실



## B1F 패총 복원 전시실

모요로 패총의 발견과 조사의 발자취를 살펴봅니다.



패총 복원



제목글씨: 후루타 우우시

모요로 패총관

そより貝塚館

